

빅데이터를 통해 본 한국사회의 미래: 언론사 뉴스기사와 사회과학 학술논문의 '미래사회' 관련 키워드 분석*

김문조**, 이왕원***, 이혜수****, 서병조*****

요약

본 연구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한국사회의 미래를 예견해보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일차적으로 국내 127개 주요 언론사의 뉴스기사(매체지) 및 사회과학 우수학술지 논문초록(학술지) DB에서 '미래사회' 관련 텍스트를 선정한 후, 해당 기사의 제목 및 논문 키워드로부터 주제어를 추출하였다. 추출한 핵심 주제어의 출현 빈도, 연도별 추세 및 주제어/연관어 연결망 구조에 의거해 한국사회의 미래적 관심사를 탐지한 결과, 매체지의 미래 관심사는 '경제', '정치', '과학기술', 학술지의 그것은 '심리', '직무', '문화' 관련 사항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여기에 Jürgen Habermas의 '체계와 생활세계(system and life-world)' 개념틀을 적용하면, 매체지와 학술지의 미래 관심은 각기 '체계' 및 '생활세계' 범주에 집중되어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 같은 미래 관심사의 분화 양상에 착안해 사회적 도전 과제들을 상이한 여건이나 가치들 간의 불일치의 소산으로 인식하는 '부조화론(mismatch theory)'을 미래연구를 위한 대안적 패러다임으로 제시함으로써, 절대적 혹은 상대적 빈곤 문제에 천착해 온 미래사회의 인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자 한다.

주제어: 미래, 언론사 뉴스기사, 학술논문, 부조화, 빅데이터, 한국사회

Forecasting the Future Korean Society: A Big Data Analysis on 'Future Society'-related Keywords in News Articles and Academic Papers

Kim, Mun-Cho, Lee, Wang-Won, Lee, Hye-Soo, Suh, Byung-Jo

Abstract

This study aims to forecast the future of the Korean society via a big data analysis. Based upon two sets of database - a collection of 46,000,000 news on 127 media in Naver Portal operated by Naver Corporation and a collection of 70,000 academic papers of social sciences registered in KCI (Korea Citation Index o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between 2005-2017, 40 most frequently occurring keywords were selected. Next, their temporal variations were traced and compared in terms of number and pattern of frequencies. In addition, core issues of the future were identified through keyword network analysis. In the case of the media news database, such issues as economy, polity or technology turned out to be the top ranked ones. As to the academic paper database, however, top ranking issues are those of feeling, working or living. Referring to the system and life-world conceptual framework suggested by Jürgen Habermas, public interest of the future inclines to the matter of 'system' while professional interest of the future leans to that of 'life-world.' Given the disparity of future interest, a 'mismatch paradigm' is proposed as an alternative to social forecasting, which can substitute the existing paradigms based on the ideas of deficiency or deprivation.

Keywords: future, news article, academic paper, mismatch, big data, Korean society

2018년 8월 6일 접수, 2018년 8월 7일 심사, 2018년 9월 18일 게재확정

* 이 논문은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3A2066149). 자료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관한 <2016-2017 ICT 기반 국가미래전략 BIG STEP 연구> 사회부문 연구 결과를 활용함.

** 주저자. 강원대학교 석좌교수(muncho@korea.ac.kr)

*** 고려대학교 응용문화연구소 객원연구위원(sanha22c@naver.com)

**** 강원대학교 SSK사회통합연구센터 전임연구원(cleehs@gmail.com)

***** 교신저자. 前 한국정보화진흥원장(suhbyungjo@naver.com)

www.kci.go.kr

I. 서론

경제사가 Robert Heilbroner는 <Visions of the Future(미래의 전망)>이라는 저서에서 인류역사에 등장한 미래관을 기원전 15,000년에서 17세기 초에 이르는 장구한 시기에 존속해 온 전근대 사회의 전통적 미래관, 17세기 초에서 20세기 중엽까지의 근대 서구 사회를 특징짓던 역동적 미래관, 그리고 최근 수십년간의 생활체험에 근거한 현대적 미래관으로 구분한 바 있다(Heilbroner, 1995).

전통적 미래관은 정태성·수동성을 특징으로 한다. 전통사회의 현인들은 앞날의 길흉화복을 예측하기는 했어도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개진한 경우가 드물었던 까닭이다. 자생적 힘에 의해 미래를 개조할 수 있다는 변혁 의지를 동반한 역동적 미래관이 출현하게 된 것은 세상이 이성의 소지자인 인간에 의해 바뀌어 간다는 인류 주도적 세계관이 대두한 근대에 이르러서이다. 그 결과, 근대사회에서는 ‘법칙’이라는 현행 작동원리가 ‘관행’이라는 과거의 실행원리보다 중시되어 왔다. 하지만 구조적 복잡성과 과정적 역동성으로 인한 사회적 불확실성이 고조되어가는 최근에는 미래적 ‘전망’이 사회체계에 대한 인식의 핵심을 이뤄가고 있다.

따라서 세계 유수 연구기관들이 미래사회의 탐사에 전력해 왔으며, 국내에서도 공공 연구조직이나 민간 연구단체를 중심으로 미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러나 국내 연구는 주로 해외 연구 사례를 답습하거나 기술적 요소를 추측으로 한 사회체계의 추세 진단에 주력해 왔다(KISDI, 2017; KISTEP, 2018; NARS, 2012; NIA, 2011; OECD, 2018; STEPI, 2018). 현대사회는 다방면에서 혼돈이 심화되는 고(高)엔트로피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어, 방대한 자료를 폭넓게 활용한 데이터기반 미래 탐사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난 10 여년간 온축된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한국사회의 미래를 탐사해 보고자 한다.

빅데이터 분석법의 의의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역력히 드러난다. 첫째, 사례중심의 귀납적 접근이 지닌 이점으로, 방대한 자료에 의한 빅데이터 분석은 선입견을 배제한 개방적 논증으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둘째, 부분과 전체를 동시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넓은 시야각으로 거시적 현상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도모할 수 있다. 셋째, 통찰적 접근이나 모델중심적 접근에서 간과되어 온 특이점(Outlier)을 포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모수에 대한 추정 오차를 축소시켜 새로운 사태나 추세의 발굴을 증진할 수 있다(Cielen, Meysman & Ali, 2016; Hayashi, 1998; Jeon & Kim, 2017).

II. 연구 절차

1. 연구방향

정보혁명 이후 물재(物材)와 변별되는 이진성·공유성·복제성·무한 사용성 등을 속성으로 하는 무형적 자원(Intangible Resources)으로서의 정보가 사회 구성의 중추적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Daniel Bell이 노동가치설을 넘어선 정보가치설을 정보사회의 원형인 후기산업사회의 새로운 생산원리로 제시한 것은 그러한 주장의 선지적 사례에 속한다(Bell, 1973). 그런데 최근 정보 중에서도 그 체계화된 형태인 지식의 활용 가치가 날로 신장되어, 현대사회는 지식기반사회나 지식사회로 규정되고 있다. 바야흐로 지식이 사회체계의 정의적 특성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Drucker, 1993; Stehr, 1994). 따라서 품미하는 지식의 유형이나 속성을 통해 사회체계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식사회론적 접근이 학계 안팎에서 성행해 왔다(Nonaka & Takeuchi, 1995; Pink, 2005).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사회적 역동성을 탐지하는 데 지식체계의 변화상에 관한 분석이 막중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면, 미래 사회라는 앞날을 추정하는 데는 지식의 어떠한 측면에 주시해야 할 것인가? 일찍이 Jürgen Habermas가 <Erkenntnis

und Interesse(인식과 관심))에서 표명한 논제에 입각해 응답을 추구해 보자면, 미래사회에 대한 진단에는 '지식을 이끄는 관심(erkennntnisleitende interesse: knowledge-leading interest)'에 해당하는 사회적 관심사가 결정적 단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Habermas, 1972[1968]).

따라서 본 연구는 초기 기획 단계에서 1) 학술(사회과학) 영역의 학술지(Academic Knowledge), 2) 공공 영역의 정책지(Policy Knowledge), 3) 시민사회 영역의 민간지(Lay Knowledge), 4) 언론 영역의 매체지(Media Knowledge)라는 4개 부문의 빅데이터로부터 미래사회를 예측할 수 있는 주요 관심사들을 추출, 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래 한국사회의 동향을 전망해보고자 했다. 그러나 DB 구축 과정에서 절차적·실무적 난제에 직면해 관심사의 기반이 되는 지식체계를 일단 학술지와 매체지의 양대 유형에 한정하였다. 그들로부터 미래적 관심사를 대변하는 주제어를 추출하여 분석한 후, 정책지를 부가적으로 고려해 한국사회의 미래를 전망하는 절차를 밟고자 한다.

2. 연구자료

우선 사회적 여론을 대변하는 매체지 및 사회과학계 연구가들의 시각을 반영하는 학술지 DB로부터 미래사회 관련 주제어들을 추출한 후, 통계처리를 위한 공개 S/W 패키지로 빅데이터 분석에 유용한 R 기법을 활용해 그 출현 빈도, 종단적 추세 및 연관어와의 연결망 구조를 분석하여 한국사회의 미래를 예견해 보고자 한다(Kabacoff, 2011).

매체지의 경우, 2005년 1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의 12년 6개월 동안 네이버포털에 실린 138개 언론사의 뉴스기사 DB에서 본문 중 '미래'와 '사회'라는 용어가 포함된 기사의 제목에 등장하는 주제어들의 출현 빈도를 산정해 핵심 주제어를 추출한다. 한편 학술지는 같은 기간에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Korea Citation Index)에 등록된 2396종의

사회과학 학술지 DB에 실린 70,000 건의 연구논문 요약문에 '미래'나 'Future'라는 용어가 출현하는 논문의 키워드 목록 중 출현 빈도가 높은 순서로 핵심 주제어로 선정한다.

수집된 원자료는 비정형 언어 자료로서, 수리적 분석을 위한 자료의 전처리가 간단치 않다. 따라서 대부분 사회과학 연구자들이 이 단계에서 어려움에 직면해 업체나 자료처리 전문가에게 의존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사회과학적 식견의 부족으로 치명적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연구진 자체가 자료 처리를 직접 담당하였다.

비정형 언어데이터를 수리적으로 재배열하는 과정에서는 일차적으로 1) 의미론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언어 품사들을 제거하고, 2) 비(非)해석적 기호와 문자를 제외하는 작업을 필요로 한다. 텍스트마이닝에는 지정된 용어들을 문장과 문단에서 추출하는 '사전어 처리' 기법이 주로 사용된다. 불용어를 미리 지정해 제외시키고, 지정된 용어들만을 추려내는 방식이다(R Core Team, 2016). 그러나 이 방식에는 미래사회 관련 주제어 선별에 불리한 부분이 있다. 자료로 선정된 매체지의 기사와 학술지의 논문에는 수많은 고유명사와 신조어가 속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조어나 전문어휘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내부 논의를 통한 합의를 거친 경우가 많다. 예컨대 '한국/대한민국/코리아'를 '한국'으로 통합하고, '미국/대미'를 '미국'으로, '글로벌/세계화/지구화/세계'를 '글로벌'로 단일화하며, '삼성/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화재' 등을 '삼성그룹'으로 통일한 것들은 모두 집단적 논의를 거친 것으로, 상위 20개, 40개, 70개, 90개 등의 주요 주제어의 순위는 바로 그러한 절차를 통해 조정된 결과인 것이다. 텍스트마이닝에서 불용어 제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대체어 지정이다. 따라서 유사어휘들의 단일어화 작업 및 비의미/다의미적 단어들의 제거 역시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자가 자료 전처리 과정에 참여할 때 가장 만족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Nunan & Di Domenico, 2017). 자료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

란다(NIA, 2017: 15-2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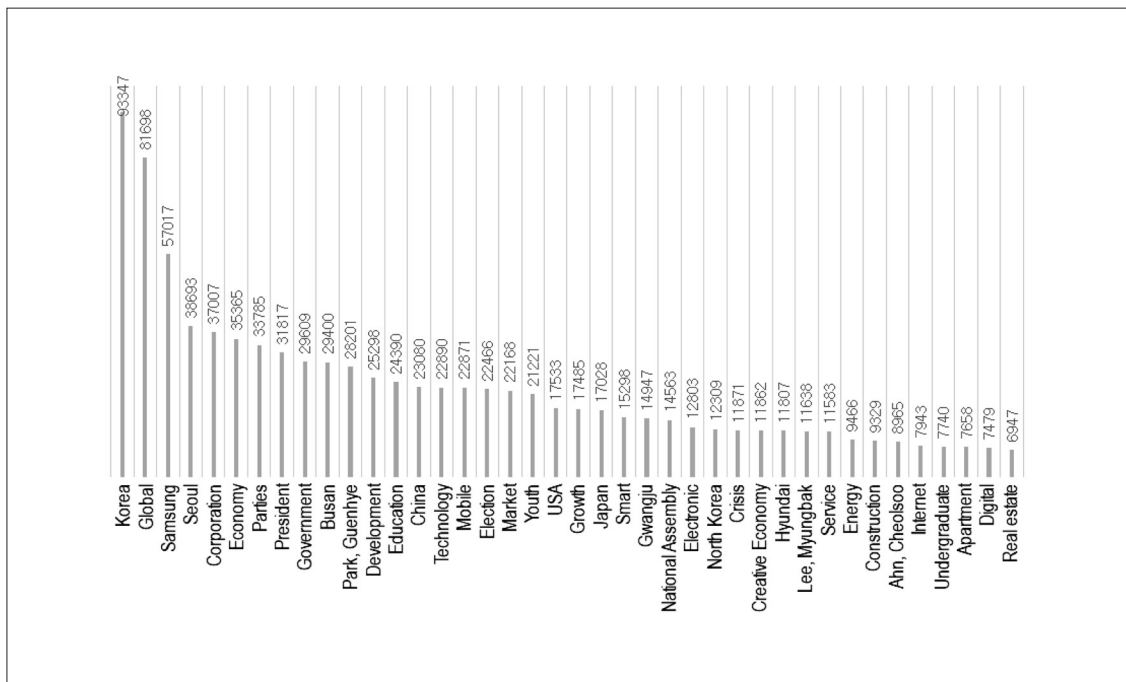
3. 자료 분석

빅데이터 분석은 다음 네 가지 단계로 진행한다. 첫 단계는 학술지와 매체지의 상위 빈도를 차지하는 주제의 추출이다. 즉, 2005년부터 2017년 상반기에 이르는 전 기간에 가장 많이 등장한 미래사회 관련 용어들을 주제로 선정한 후, 두 DB 간의 차이를 비교한다. 둘째 단계에서는 주요 주제의 종단적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작업으로, 주요 주제들의 출현 빈도를 연도별로 살펴본 후, 그들을 네 가지 유형(지속증가형, 지속감소형, 증가후 감소형, 감소후 증가형)으로 구분해 상대적 비중의 변화를 비교한다. 셋째 단계로는 키워드 연결망분석(Keyword Network Analysis, KNA)을 통해 주제어 및 연관어의 연결망 구조를 파악한다.

III. 분석 결과

1. 누적빈도수에 의거한 미래사회 관련 핵심 주제어

첫 번째 분석 결과는 2005-2017년 상반기까지의 자료 전체에 대한 빈도수에 관한 것이다. <그림 1>은 매체지의 상위 40위 주제어이며 <그림 2>는 학술지 상위 40위 주제어이다. 매체지와 학술지의 상위빈도수 주제어를 선정하는 과정은 기본적인 데이터 처리과정 외에도 수차례에 이르는 연구진들의 숙의 및 자료 정제 작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의미가 없는 용어, 광고관련 용어 등을 제외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비슷한 의미의 용어를 묶거나 다양한 의미를 행사할 수 있는 용어의 실제 의미를 파악하여 데이터 왜곡을 극소화하고자 노력했다.



<그림 1> 매체지 출현 빈도 순위

<Fig. 1> Frequency of forty most frequently occurred keywords in media knowled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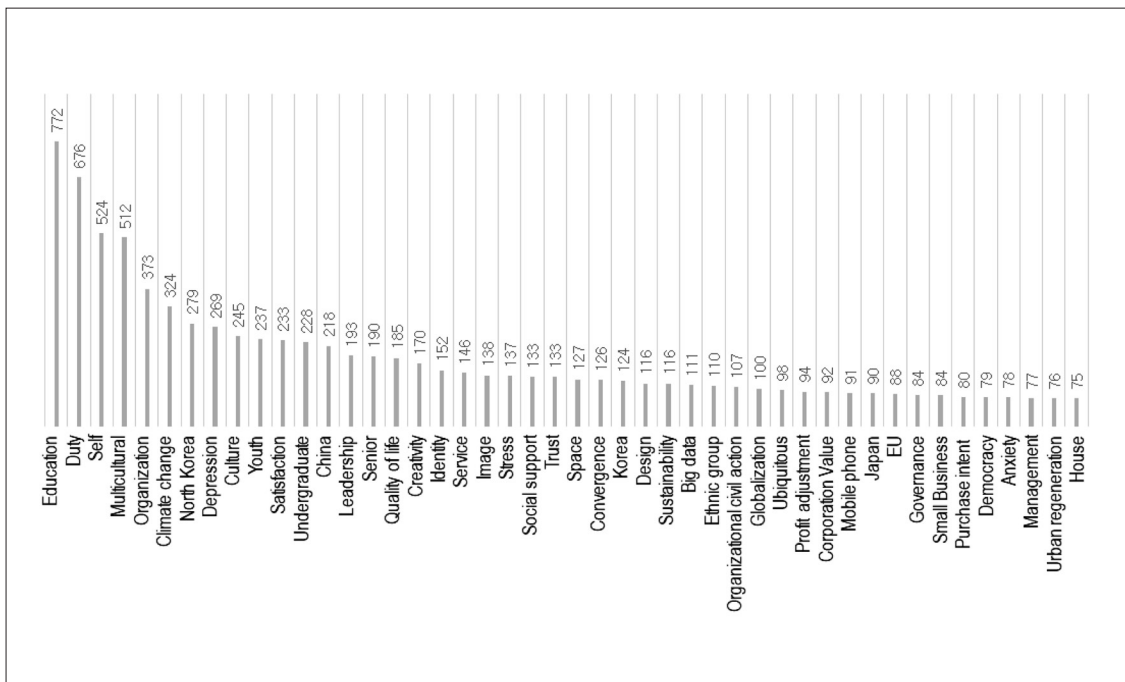
1) 매체지 상위 40위 주제어

〈그림 1〉로 정리된 매체지의 상위 40위 주제어를 살펴보면, 한국과 글로벌 그리고 삼성그룹의 세 가지 주제가 여타 주제어들과 큰 차이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상위 10위권 내에는 서울, 기업, 경제, 정당, 대통령, 정부 그리고 부산이 포함되어 있다. 상위 10위권 주제어들은 한국, 글로벌, 서울, 부산과 같은 지명관련 단어들과 삼성그룹, 기업, 경제와 같은 경제 관련 단어들, 그리고 정당, 대통령, 정부 같은 정치 관련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명관련 주제어들의 경우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실질적 의미가 달라지는 중립적 주제어들이라고 간주할 때, 경제와 정치라는 두 가지 주제어군이 매체지 미래 관심사의 핵심적 용어라고 말할 수 있다. 11위부터 20위까지의 주제어에는 보다 다양한 이슈들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 미국과 같은 국제지명 관련 주제어들과 박근혜, 선거와 같

은 정치관련 주제어 외에도 개발, 기술, 모바일 같은 기술관련 주제어들이 새로 포함되어 있다. 또 교육, 청소년 같은 사회적 문제와 차세대 이슈 역시 상위 20위 안에 포함되어 있다. 상위 21위부터 40위까지의 주제어에는 앞서 살펴본 지명, 경제, 시장, 기술, 사회적 문제, 차세대 등의 핵심 주제어군과 관련된 용어들이 폭넓게 포진되어 있다. 요컨대, 출현 빈도를 바탕으로 한 매체지의 미래 이슈는 경제와 정치라는 핵심적 이슈를 중심으로 기술, 사회적 문제, 차세대 등의 소재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 학술지 상위 40위 주제어

〈그림 2〉는 학술지의 상위 40위 주제어들을 서열별로 정리한 것으로, 교육, 직무, 자아, 다문화의 네 가지 주제가 최상위권을 구성하고 있다. 이 외에도 조직, 기후변화, 북한, 우울, 문화, 청소년의 단어들이 10위



〈그림 2〉 학술지 출현 빈도 순위

〈Fig. 2〉 Frequency of forty most frequently occurred keywords in academic knowledge

내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상위 10위권 주제어들의 구성에서 학술지는 매체지와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교육, 다문화, 기후변화, 문화, 청소년 등 주요한 사회적 이슈들이 골고루 포진되어 있으며, 직무나 조직은 경제와 관련된 것이지만 보다 미시적 차원의 일과 회사 등과 직결된 직무나 조직도 주제어 군에 포함되어 있다. 또 자아, 우울과 같이 개인의 정체성 또는 정서와 관련된 주제어가 미래 관련 중요한 이슈로 꼽히고 있다. 상위 20위 주제어 범주에는 대학생, 노인과 같은 세대 이슈와 만족도, 리더십, 창의성, 서비스, 이미지와 같은 시장과 경제관련 주제어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 삶의 질이나 정체성 같은 자아나 웰빙과 관련된 주제어들이 상위 20위 내에 속해 있다. 상위 40위권까지의 주제어들을 살펴보면, 사회적 이슈, 자아, 웰빙, 일과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과 함께 융합, 빅데이터, 유비쿼터스, 스마트폰과 같은 기술 관련 단어들이 등장한다. 요컨대, 학술지의 핵심적 미래 아젠다는 자아와 삶의 웰빙 이슈, 세대 이슈, 경제 이슈와 다양한 사회문제 이슈로 총괄할 수 있다. 매체지의 관심사였던 정치 이슈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경제이슈의 성격 역시 보다 미시적 차원의 관심사에 집중되어 있다. 대신, 자아와 삶의 질에 관한 이슈들이 미래 관심사로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핵심 주제어의 시계열 분석

다음 단계로 지난 13년간의 매체지와 학술지 상위 주제어의 빈도 순위를 추적해 연도별 추이를 파악한다. 동시에 이들 상위 주제어를 항상적 상위 주제어와 유동적 상위 주제어로 유형화하여 매체지와 학술지의 종단적 동향을 유형별로 살펴본다.

1) 매체지 상위 주제어의 연도별 추이

〈표 1〉은 매체지 상위 주제어의 연도별 순위이다. 한국, 글로벌, 삼성그룹의 3개 키워드가 모든 조사년도에 걸쳐 Top 5 안에 위치해 있다. 또 서울, 기업, 경제의

3개 주제어는 조사년도 대부분에 걸쳐 Top 10 안에 위치한다. 이러한 경향은 매체지에서 ‘미래’와 관련해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경제 영역이 상수로 존재함을 보여준다. 정치 영역에서는 대통령이 모든 조사년도에서 Top 20안에 위치하고 있다. 또 정부와 정당이 대부분의 조사년도에서 Top 30위 안에 포함된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부와 정당이 매체지 정치 영역의 핵심 미래 관심사임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거의 모든 조사 년도에 걸쳐 Top 20 안에 위치하여 미국이나 북한보다 미래 연관성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미국, 북한, 일본 등도 상위 주제어들에 포함되지만, 중국에 비하면 중요도의 항상성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매체지의 유동적 상위 주제어들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정권교체 등 정치적 상황변화에 따라 Top 20 안에서 등장과 소멸을 반복하는 정치 관련 주제어들이 존재한다. 특히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안철수 등 주요 정치인 이름의 유동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 녹색성장, 창조경제 등 각 정권의 핵심 캐치프레이즈도 유동적인 주제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영역과 관련하여, 대선과 총선이 있는 연도마다 선거 주제어가 Top 20 안으로 등장하며 매체지에서의 단기적 관심사가 정치 이슈에 크게 좌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술과 관련해서는 인터넷, 디지털, 유비쿼터스와 같은 주제어들이 점차 상위권에서 밀려나고, 모바일과 스마트폰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 2015년에는 핀테크, 2016년에는 인공지능이 새롭게 Top 40에 등장하는 등 기술 영역에서의 주요 주제어들의 교체가 보다 명시적으로 나타난다.

2) 학술지 상위 주제어의 연도별 추이

학술지 상위 주제어의 연도별 순위는 〈표 2〉와 같다. 교육과 직무라는 주제어가 모든 조사년도에 걸쳐 Top 5 안에 위치한다. 또 자아 역시 대부분의 조사년도에서 Top 5안에 위치한다. 이 외에도 조직과 우울이 거의 모든 조사년도에서 각각 Top 10과 Top 20 안에 위치하고 있다. 학술지의 항상적 주제어들의 성격은 매체지

〈표 1〉 매체지 상위 주제어의 연도별 순위
 (Table 1) Rank of top forty keywords by year in media knowledge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1
1	Korea	Korea	Global	Global	Global	Global	Global	Korea	Korea	Korea	Korea	Korea	Korea
2	Global	Global	Korea	Korea	Korea	Korea	Korea	Global	Global	Global	Global	Global	Samsung
3	Samsung	Samsung	Election	Lee MyungBak	Samsung	Samsung	Samsung	Election	Government	Samsung	Samsung	Party	Election
4	Economy	Enterprise	Samsung	Economy	Economy	Election	Seoul	Samsung	Samsung	Mobile	Seoul	Enterprise	Ahn Cheolsoo
5	Enterprise	Party	Party	Samsung	Enterprise	Seoul	Economy	Park GeunHye	Park GeunHye	Seoul	President	Samsung	Global
6	Japan	USA	Lee MyungBak	Enterprise	Seoul	Enterprise	Enterprise	Party	President	Enterprise	Enterprise	Seoul	Moon Jaein
7	Foreigner	Economy	Economy	Seoul	Lee MyungBak	Economy	Party	Economy	Party	Development	Park GeunHye	President	Seoul
8	Roh Moohyun	President	Enterprise	President	Busan	Busan	Busan	Ahn Cheolsoo	Creative Economy	Busan	China	Park GeunHye	President
9	Seoul	Seoul	President	Government	President	Party	Youth	Seoul	Economy	Government	Development	Economy	Party
10	President	Roh Moohyun	Seoul	Busan	Government	Sejong-si	Market	Busan	Seoul	Economy	Technology	Busan	Government
11	China	Growth	USA	Party	Crisis	Education	Education	Enterprise	Enterprise	Technology	Economy	Development	Enterprise
12	Development	Election	Integration	USA	Education	Lee MyungBak	Smart	Youth	Mobile	President	Busan	Government	Education
13	Growth	Market	China	China	Development	President	USA	Moon Jaein	Busan	Market	Mobile	Technology	Busan
14	Busan	Busan	Growth	Education	USA	Youth	Development	Education	Youth	Education	Government	Education	Economy
15	USA	Education	Busan	Youth	Youth	Market	Growth	President	Development	Party	Market	Election	Development
16	Technology	Development	Youth	Growth	Growth	Mobile	Lee MyungBak	China	Education	China	Education	National Assembly	Technology
17	Market	Japan	Education	Japan	Party	Development	President	Government	China	Park GeunHye	Japan	Gwangju	Job
18	Government	Government	Roh Moohyun	Development	Market	China	Government	Smart	Technology	Creative Economy	Smart	Market	Lee Jaeyong
19	Party	China	Development	Crisis	Green growth	Apartment	China	Market	Market	Smart	Youth	Youth	Youth
20	Education	Technology	Market	Election	Technology	Japan	Mobile	Growth	USA	Youth	Creative Economy	China	Gwangju

〈표 1 계속〉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1
21	Digital	Youth	Technology	Market	China	Government	Technology	Technology	Smart	Sewol ferry	Gwangju	Smart	Market
22	North Korea	Foreigner	Construction	Technology	Sejong-si	Technology	Japan	Technology	National Assembly	Electronic	National Assembly	Mobile	Special prosecutor
23	Youth	Real estate	Government	Gwangju	Obama	Growth	Electronic	Crisis	Japan	Service	Growth	Growth	Growth
24	Electronic	Construction	Japan	Internet	Japan	Electronic	Park GeunHye	Mobile	Growth	National Assembly	USA	Ahn Cheolsoo	Hyundai
25	Dokdo	Digital	Park GeunHye	Energy	Construction	USA	Hyundai	Japan	Hyundai	Japan	North Korea	Hyundai	USA
26	Internet	North Korea	Gwangju	National Assembly	Gwangju	Construction	Construction	USA	Gwangju	Gwangju	Party	USA	Ahn Heejung
27	Crisis	Electronic	Digital	Construction	Electronic	North Korea	Election	Gwangju	Electronic	Growth	Service	Crisis	Mobile
28	Real estate	Crisis	North Korea	Dokdo	Digital	Hyundai	Crisis	Lee MyungBak	Service	North Korea	Electronic	North Korea	National Assembly
29	Gwangju	Service	Crisis	Obama	Energy	Energy	Gwangju	Hyundai	Internet	Election	Hyundai	Service	Smart
30	Construction	Lee MyungBak	Electronic	Electronic	Eco-friendly	Smart	North Korea	Graduate Student	North Korea	USA	Apartment	Japan	Yu Seungmin
31	Cheonggye creek	Internet	Hyundai	Digital	National Assembly	National Assembly	National Assembly	Electronic	Ahn Cheolsoo	Hyundai	Energy	AI	China
32	Competitiveness	Hyundai	Internet	Eco-friendly	Service	Gwangju	Graduate Student	Construction	Election	Internet	FinTech	Electronic	Hong Junpyo
33	Ubiquitous	Park GeunHye	Service	Real estate	Job	Crisis	Park Wonsoo	North Korea	Crisis	Energy	Abe	Creative Economy	Park GeunHye
34	Next generation	Polarization	Energy	North Korea	North Korea	Cheonan ship	Energy	National Assembly	Graduate Student	Crisis	Internet	Job	Crisis
35	National Assembly	Gwangju	Competitiveness	Service	Hyundai	Park GeunHye	Ahn Cheolsoo	Energy	Energy	Apartment	Crisis	Choi Soonsil	Service
36	Service	Competitiveness	Real estate	Competitiveness	Real estate	Eco-friendly	Service	Service	Job	Construction	Election	Energy	Pledge
37	Park GeunHye	Next generation	Next generation	Foreigner	Competitiveness	Service	Science belt	Job	Digital	Graduate Student	Moon Jaein	Real estate	Japan
38	Apartment	Mobile	National Assembly	Hyundai	Next generation	Digital	Real estate	Camp	Construction	Digital	Job	Construction	Digital
39	Election	Graduate Student	Graduate Student	Next generation	Apartment	Real estate	Apartment	Kim Chankyung	Talent	Regulation	Graduate Student	Graduate Student	North Korea
40	Hyundai	Apartment	Competition	Mobile	Graduate Student	Job	Eco-friendly	Real estate	Government inspection	Next generation	Construction	Start up	Trump

〈표 2〉 학술지 상위 주제어의 연도별 순위
 〈Table 2〉 Rank of top forty keywords by year in academic knowledge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1
1	Education	Education	Education	Education	Multicultural	Multicultural	Multicultural	Education	Self	Education	Education	Education	Education
2	Duty	Duty	Duty	Duty	Organization	Duty	Education	Duty	Duty	Duty	Duty	Duty	Duty
3	Self	Organization	Organization	Multicultural	Duty	Education	Self	Multicultural	Education	Self	Self	Self	Self
4	Ubiquitous	Self	Ubiquitous	Self	Education	Organization	Duty	Self	Multicultural	Multicultural	Multicultural	Multicultural	AI
5	Organization	Ubiquitous	Image	Organization	Self	Self	Organization	Organization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	Organization	Graduate Student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6	Trust	Leadership	Space	Culture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	Graduate Student	Depression	North Korea	Climate change	Depression	China
7	Leadership	Culture	Satisfaction	Depression	Satisfaction	Culture	Youth	Depression	Organization	Depression	North Korea	Big data	Multicultural
8	Quality of life	Space	Culture	Youth	North Korea	China	Depression	Youth	Graduate Student	Satisfaction	Convergence	Climate change	Graduate Student
9	Globalization	Multicultural	North Korea	North Korea	Culture	Satisfaction	Leadership	Climate change	North Korea	Organization	Graduate Student	North Korea	Big data
10	Senior	Identity	Depression	Ubiquitous	Space	North Korea	China	Satisfaction	Quality of life	Youth	China	AI	Creativity
11	Culture	Satisfaction	China	Senior	Ethnic group	Identity	North Korea	Creativity	Social support	Culture	Senior	Youth	Satisfaction
12	Image	Globalization	Graduate Student	Satisfaction	Senior	Youth	Culture	Mobile phone	Senior	Quality of life	Culture	Quality of life	Organization
13	Regionalism	Senior	Self	Space	China	Leadership	Graduate Student	China	Satisfaction	China	Big data	Organization	Climate change
14	Creativity	North Korea	Climate change	Service	Stress	Graduate Student	Mobile phone	Leadership	Culture	Creativity	Depression	Senior	Service
15	Modernity	Depression	Ethnic group	Climate change	Leadership	Organizational civil action	Design	Culture	China	Big data	Creativity	Satisfaction	Convergence
16	Network	Image	Stress	Globalization	Trust	Sustainability	Satisfaction	North Korea	Youth	Graduate Student	Youth	China	IoT
17	Satisfaction	Human resource	Youth	Trust	Depression	Senior	Identity	Trust	Leadership	Leadership	Social support	Culture	Quality of life
18	Depression	Internet	Network	EU	Identity	Quality of life	Ethnic group	Senior	Communication	Stress	Quality of life	Korea	Depression
19	EU	Youth	Globalization	Profit adjustment	Quality of life	Stress	Quality of life	Service	Service	Service	Leadership	Image	Youth
20	Japan	Enterprise value	House	Image	Organizational civil action	Image	Sustainability	Democracy	Design	Image	IoT	Leadership	Korea

〈표 2 계속〉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1
21	e-Commerce	Network	Sustainability	Leadership	Korea	Green growth	Social support	Quality of life	Stress	Korea	Satisfaction	IoT	VR
22	e-Government	Graduate Student	Senior	Japan	Environment	Ethnic group	Green growth	Stress	Sustainability	Convergence	Identity	Service	Culture
23	Identity	Democracy	Multicultural	Social support	Asia	Depression	Democracy	Design	Korea	Identity	Purchase intent	Convergence	Social support
24	House	Service	Leadership	Asia	Management	Creativity	Creativity	Identity	Convergence	Sustainability	Enterprise value	Urban Renaissance	Identity
25	Competitiveness	Asia	Democracy	Human resource	Design	Space	Globalization	Happiness	Image	Senior	Design	Stress	Sustainability
26	Balanced scorecard	Mental health	Service	China	Service	Social integration	Stress	Purchase intent	Identity	Space	Emotional labor	CSR	Leadership
27	Graduate Student	Organizational civil action	Trust	Creativity	EU	Service	Space	Social enterprise	Organizational civil action	Anxiety	Anxiety	Creativity	North Korea
28	Motivation	China	Human resource	Korea	Ubiquitous	Globalization	Senior	Organizational civil action	Creativity	Trust	Service	Sustainability	Asia
29	Demanding forecasting	Creativity	Governance	Corporate governance	Japan	FTA	Trust	Memory	Mobile phone	Governance	Korea	Social media	Ability
30	Simulation	National defence	Social support	Design	Enterprise value	Small Business	Profit adjustment	Enterprise value	Low birthrate	Management	Governance	Enterprise value	Humanities
31	Preservice infant teacher	Balanced scorecard	Quality of life	Quality of life	Green growth	Design	EU	Profit adjustment	Behavior intention	Social enterprise	Community	Social support	Japan
32	Profit adjustment	Modernization	Human rights	Management	Internet	Trust	Convergence	Japan	Purchase intent	Social support	Sustainability	Space	Small Business
33	Human resource	Anger	Japan	Commitment	FTA	Community	Human rights	Mental health	Social integration	Organizational civil action	Urban Renaissance	Trust	Hallyu
34	Internet	Preference	Empowerment	Ethnic group	Small Business	Teacher education	Korea	Management	Hallyu	Value relevance	Mobile phone	Japan	Design
35	Disabled	Market directivity	FTA	Productivity	Governance	Network	Service	Company result	Experience	CSR	Image	Aggression	Management
36	Information	Trust	Identity	Board of directors	Simulation	Russia	Image	Social support	CSR	Smart education	Organizational civil action	Teacher education	Writing
37	Emotional intelligence	New institutionalism	Korea	Mental health	Profit adjustment	Mobile phone	Small Business	Convergence	Mindfulness	Profit adjustment	Value relevance	Purchase intent	Narrative Study
38	Organizational civil action	Self identity	Economic growth	Policy	Copyright	EU	Post-modernism	Suicidal thoughts	Big data	Contents	Asia	Mental health	Urban Renaissance
39	Vocational rehabilitation	Professionalism	Aging	Identity	Emotion	Copyright	Governance	Loyalty	Social capital	Behavior intention	Teacher education	Tax avoidance	North Korean refugees
40	Youth	Taekwondo	Practice teaching	Community involvement	Knowledge	House	Aggression	Effectiveness	Trust	Enterprise value	SNS	Behavior intention	Brand

와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교육이라는 압도적인 미래 관심사와 함께, 직무와 조직의 미시적인 경제 이슈와 자아와 우울을 포함하는 개인의 정서와 관련된 주제가 모든 조사년도에서 미래 관심사의 상수로 작동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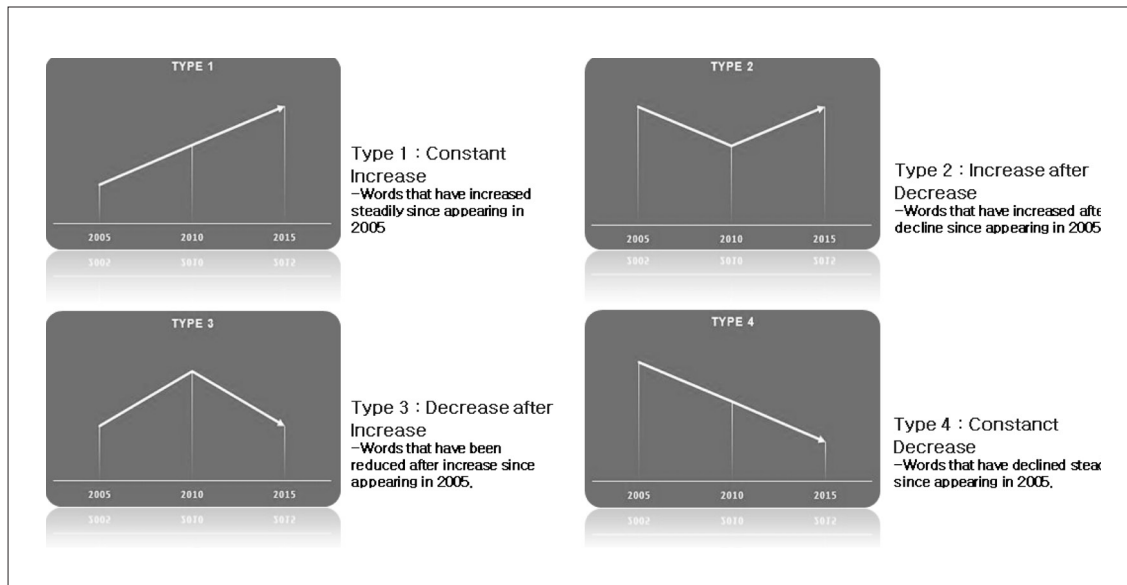
그러나 학술지의 유동적 상위 키워드들은 대체로 다양한 주제어군을 포함하고 있다. 유비쿼터스의 경우 2008년 이후 빠르게 소멸했으며, 다문화의 경우 2009년 등장 이후 Top 10 안에 꾸준히 진입하고 있다. 기후변화 역시 2009년 이후부터 Top 10 안에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주제어이다. 기술과 사회 이슈와 관련된 주제어들의 유동적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매체지에서 가장 중요한 유동적 주제어로 드러났던 선거나 정권과 관련된 주제어들이 학술지에서는 거의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매체지와 학술지가 상정하는 시간 단위와 관련되어 있다고 추정된다. 매체지가 짧게는 하루 단위의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되는 지식이라면, 학술지의 경

우는 보다 긴 시간을 염두에 두면서 지식의 시기적 특수성보다 보편성에 주시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선거와 같은 시류적 속성을 반영하는 지식에 대한 학술지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말할 수 있다.

3) 주제어 종단 변화의 유형 분석

(1) 유형 분류

상위 주제어 빈도 순위의 연도별 변화에 대한 분석에 이어, 변화가 큰 핵심 주제어들의 종단적 경향을 유형별로 구분해 보도록 하자. 유형화는 <그림 3>과 같은 네 가지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 때 2005년과 2006년, 2010년과 2011년 2015년과 2016년의 자료를 각각 통합하고 평균을 낸 수치를 활용하여, 세 시점의 주제어 비중을 바탕으로 한 네 가지 유형의 시기별 변화 형태를 추출한다. 첫 번째는 지속 증가형으로 2005년 출현 후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형태이다. 두 번째는 감소 후 증가형이고, 세 번째는 증가 후 감소형



〈그림 3〉 주제어의 종단적 변화에 관한 유형화

〈Fig. 3〉 Classification of the longitudinal changing patterns of keywords ranking

이다. 마지막으로 지속 감소형은 2005년 출현 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한 유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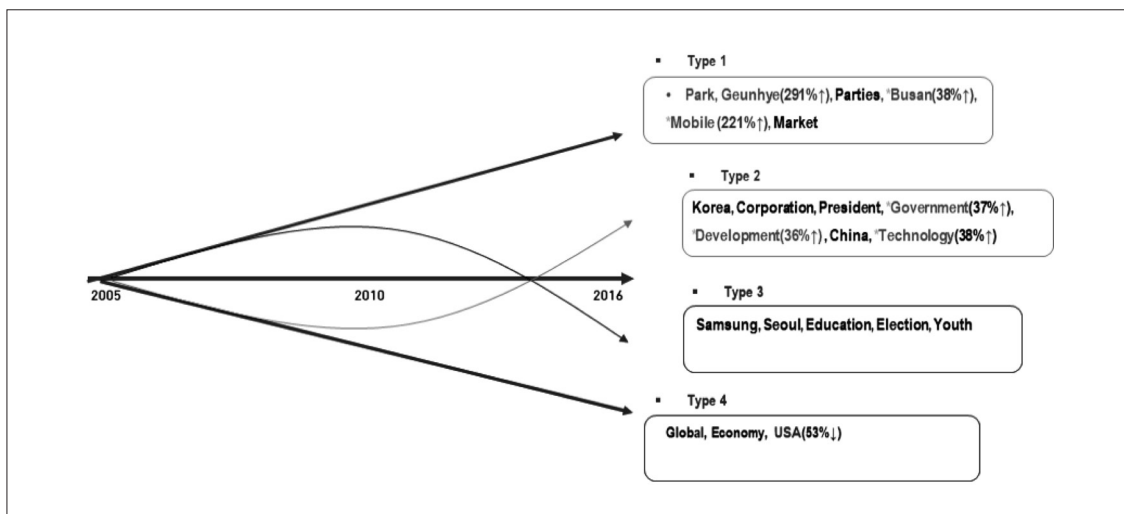
(2) 매체지 핵심 주제어의 종단적 변화 유형

〈그림 4〉는 매체지 핵심 주제어의 종단적 변화를 유형별로 구분한 것이다. 2005년 대비 2016년의 비중 변화가 30% 이상인 주제어는 굵은 글씨로 표시하였다. 이는 비중 변화가 작은 주제어 유형들로 인한 혼동을 피하기 위함이다. 지속 증가형인 유형 1의 경우, 박근혜, 부산, 모바일과 같은 증가 추세와 변동 폭이 큰 주제어들이다. 증가의 경향성이 일관적이고 그 진폭도 비교적 큰 주제어들이라고 볼 수 있다. 유형 2의 경우는 최근 들어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는 주제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부, 개발, 기술의 세 가지 단어를 포함한다. 유형 1과 2의 변동 폭이 큰 단어들은 박근혜, 정부와 같은 정치 이슈들, 그리고 모바일, 개발, 기술과 같은 기술관련 이슈들로 구성되어있다. 빈도 분석에서 그 중요성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기술관련 주제어들이 비중 변화의 유형화를 통해서 중요성이 크게 부

각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상대적인 중요도가 감소하는 유형들이라 할 수 있는 유형 3과 유형 4의 경우 비중 변화가 뚜렷한 주제어는 유형 4의 미국이 유일하다. 주요 국제관계증에서 미래와 관련해서 미국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3) 학술지 핵심 주제어의 종단적 변화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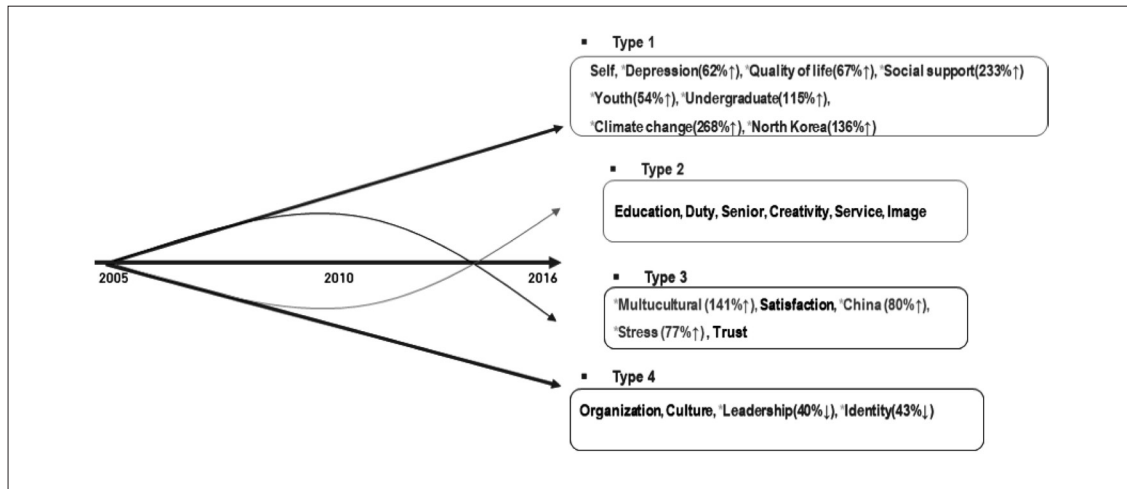
〈그림 5〉의 학술지의 경우, 우울, 삶의 질, 사회적 지지, 청소년, 대학생, 기후변화, 북한 등이 유형 1의 주제어 중 변동 폭이 큰 용어들이다. 따라서 매체지가 정치와 기술 이슈를 중심으로 미래 이슈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반면, 학술지의 경우에는 개인의 삶(우울, 삶의 질, 사회적 지지)과 세대(청소년, 대학생), 그리고 사회적 이슈(기후변화, 북한)들이 지속적인 미래 이슈로 상존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유형 2의 경우 변동 폭이 현저한 용어들은 없었다. 증가 후 감소형 주제어인 유형 3에는 다문화, 중국, 스트레스가 포함되어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 모두 2005년 대비 2016년 비중이 여전히 증가추세라는 점이다. 즉,



* 2005년 비중대비 2006년 비중변화가 30% 이상인 주제어들만 언급

〈그림 4〉 매체지 핵심 주제어 비중 변화 추이

〈Fig. 4〉 Changing trend of keywords ranking in media knowledge



* 2005년 비중대비 2016년 비중변화가 30% 이상인 주제어들만 언급

〈그림 5〉 학술지 핵심 주제어 비중 변화 추이

〈Fig. 5〉 Changing trend of keywords ranking in academic knowledge

‘강증약감(強增弱減)’의 형태로 비중변화가 이루어진 용어들이다. 이들 주제어의 경우, 관심도의 감소추세가 지속될 수도 있지만,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서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지속 감소형 유형 중 리더십과 정체성은 비중 변화 감소 폭 역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주제어들의 경우 향후 미래 관심사에서 제외될 개연성이 높다.

(4) 종단적 유형 분석의 비교

비중 변화의 유형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매체지와 학술지의 차이점 중 하나는 매체지의 경우 지속적인 증가나 감소 추세를 보이는 주제어가 제한적인 데 반해 학술지는 비교적 많은 주제어들이 일관된 경향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매체지의 주제어들이 특정 시점의 주요 이슈들을 더욱 빠르게 반영하고 퇴출시키는 데 비해, 학술지의 경우 주요 담론으로 한번 포함되면 상대적으로 긴 호흡의 흐름을 지닌다고 예상할 수 있다. 즉, 매체지 관심사가 기능적 사회체제와 직결된 지식을 중심으로 빠르게 움직인다면, 학술지의 경우는 보다 안정적

인 생활세계의 내재적 특성이나 방향성에 관심을 지니는 것으로 이해된다.

3. 키워드(주제어와 연관어) 연결망 분석(KNA, Knowledge Network Analysis)

1) 상위 주제어의 연관어 추출

다음에는 주제어 및 그 연관어들을 대상으로 한 KNA 분석을 통해 하위 집락을 확인하고 그들의 연결 구조를 분석해보도록 하자. KNA 분석을 위해서는 우선 각 주제어들의 연관어를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 매체지와 학술지 상위 20위 주제어들에 대해서 상위 40위까지의 연관어를 추출한다. 연관어 추출작업 역시 주제어 선정 작업과 마찬가지로, 수차례의 자료 정제 작업을 선행한다. 〈표 3〉과 〈표 4〉에서는 매체지와 학술지 상위 주제어들의 연관어를 순위별로 열거했다. 지면관계상 상위 20위까지의 연관어만 표로 제시했지만, 실제 분석에서는 상위 40위까지의 연관어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3〉 매체지 상위 20위 주제어의 연관어 목록
(Table 3) List of co-occurrence words of top 20 keywords of media knowledge

Korea	Global	Samsung	Seoul	Enterprise	Economy	Party	President	Government	Busan	Park Geunhye	Development	Education	China	Technology	Mobile	Election	Market	Youth	USA
Global	Korea	Global	Global	Global	Korea	Election	Park Geunhye	Park Geunhye	Global	President	Technology	Korea	Korea	Development	Samsung	Party	Global	Korea	Korea
Enterprise	Enterprise	Smart	Korea	Korea	Global	National Assembly	Lee Myungbak	Party	Korea	Government	Global	Global	Global	Korea	Market	Park Geunhye	Target	Education	Global
Economy	Samsung	Lee Jaeyong	Park Wonsoon	Samsung	Park Geunhye	Ahn Cheolsu	Economy	Economy	Economy	Economy	Korea	Youth	Market	Global	Global	Ahn Cheolsu	Korea	Economy	President
Technology	Market	Mobile	Apartment	Growth	President	Government	Korea	Korea	Youth	Party	Next generation	Seoul	Economy	Samsung	Service	Pledge	Samsung	Seoul	China
Education	Seoul	Enterprise	Education	Economy	Enterprise	Park Geunhye	Party	Global	Election	Creative Economy	Samsung	Busan	Enterprise	Enterprise	Korea	None-candidate	Mobile	Global	Summit
China	Economy	Market	Development	Technology	Government	President	North Korea	National Assembly	Party	Election	Seoul	Election	Japan	Next generation	Electronic	Economy	Park Wonsoon	Busan	Obama
Growth	Busan	Korea	Youth	Market	Growth	Representative of a party	National Assembly	President	Education	North Korea	Study	Enterprise	USA	Smart	Mobile phone	Moon Jaein	China	Program	Economy
Japan	Technology	Technology	Election	Government	China	Gwangju	Japan	Enterprise	Attract	Korea	Eco-friendly	Smart	Summit	Cutting-edge	Business suspension	President	Growth	Hyundai	North Korea
Market	Development	Merger	Market	China	Youth	Economy	Roh Muiyun	Enterprise	Enterprise	National Assembly	Smart	University	Samsung	Electronic	Government	Seoul	Enterprise	Samsung	Samsung
Development	China	Development	Economy	Society	Crisis	Nomination	USA	Japan	Development	Japan	Electronic	Program	Growth	Energy	Development	Backup candidate	Real estate	Mobile	Park Geunhye
Seoul	Growth	Crisis	Party	Crisis	Party	Founding party	Creative Economy	Budget	Smart	People	Energy	Training	President	Market	Smart	Busan	Smart	Gwangju	Lee Myungbak
USA	Hyundai	Semiconductor	Samsung	Competitiveness	Election	Busan	Government	Mobile	Sub Byungsoo	Global	Government	President	Park Geunhye	Government	Addiction	Victory	Seoul	China	Japan
Youth	Talent	Growth	Enterprise	Creative Economy	Japan	Party election	Election	Development	Technology	China	Mobile	SW	Mobile	Seoul	Competition	Education	Technology	Exhibition	Enterprise
Busan	Electronic	Electronic	Technology	Education	Busan	Topsider	Global	Negotiation	Japan	Summit	Enterprise	Economy	Target	Eco-friendly	Youth	Gwangju	Electronic	Multicultural	Market
President	Competitiveness	China	International	Spirit	Lee Myungbak	Seoul	Summit	Technology	Region	Ahn Cheolsu	Semiconductor	Talent	North Korea	Mobile	China	Choice	Economy	North Korea	Technology
Samsung	Mobile	Economy	China	Development	Seoul	Pledge	China	Dokdo	Undergraduate	Reform	System	Jo Huiyeon	Seoul	Busan	Technology	Elected	Government	Hope	Alliance
Crisis	USA	Galaxy	Design	Energy	Samsung	Integration	People	Creative Economy	Girl statue	Moon Jaein	Robot	Samsung	Technology	China	Terminal	Lee Myungbak	Competition	Participant	Party
Smart	Smart	Next generation	City	Seoul	Choi Kyunghwan	Negotiation	Reform	Reorganization	Expo	USA	Busan	Agreement	Export	Display	Enterprise	Korea	Leading	Addition	Government
Government	Education	Apple	Busan	Busan	National Assembly	Merge parties	Obama	North Korea	Seoul	Growth	Solar cell	Textbook	Youth	USA	KCC	National Assembly	Preoccupancy	School	Normal

〈표 4〉 학술지 상위 20위 주제어의 연관어 목록

〈Table 4〉 List of co-occurrence words of top 20 keywords of academic knowledge

Education	Duty	Self	Multicultural	Organization	Climate change	North Korea	Depression	Culture	Youth	Satisfaction	Undergraduate	China	Leadership	Senior	Quality of life	Creativity	Identity	Service	Image
Multicultural	Organization	Depression	Integration	Duty	Green-house gases	Inter-Korean relations	Anxiety	Contents	Self	Trust	Self	Korea	Organization	Depression	Depression	Personality	Multicultural	Duty	Image
Achievement standard	Service	Social support	Organizational civil action	Organizational civil action	Drought	Unification	Self	Original Culture	Depression	Loyalty	Depression	Japan	Duty	Quality of life	Self	Leadership	Education	Satisfaction	Purchase intent
Personality	Organizational civil action	Duty	Education	Leadership	Rising sea levels	House	Social support	Hallyu	Stress	Behavior intent	Self identity	USA	Innovative behavior	Life satisfaction	Senior	Convergence	Memory	Loyalty	Brand
Disabled students	Self	Undergraduate	Family	Fairness	Growth	Lee Myungbak	Stress	Space	Mental health	Commitment	Adult attachment	Russia	Creativity	Self	Social support	Education	Ethnic group	Behavior intent	Service
Capacity	Leadership	Stress	assimilation	Self	Uncertainty	China	Senior	Education	Suicidal thoughts	Service	Suicidal thoughts	North Korea	Trust	Aging	Baby boomer	Culture	China	Trust	Enterprise
Human capital	Emotional labor	Career	Social support	Trust	Land use change	EU	Quality of life	Creativity	School adjustment	Importance	Stress	Northeast Asia	Self	Health condition	Mental stability	Divergent thinking	Paradigm	Ubiquitous	Robot
Local community	Customer-orientation	Quality of life	Bilingual	Empowerment	Rainfall probability	Peace	Suicidal thoughts	Creative Economy	Game addiction	Visiting motivation	Leadership	Culture	Organizational civil action	Education	Youth	Leadership	Marriage	Image	Physical environment
Culture	Duty	Youth	Identity	Result	Water temperature	Real estate	Youth	Policy	Multicultural	Value	Disabled	Asia	Psychological capital	Hurt from a fall	Breast cancer	Multiple intelligence	Nation	Information quality	Innovation
Convergence	Leadership	Organization	Married immigrant	Emotional labor	Adaptation	Division	Undergraduate	Art	Quality of life	Motivation	Course maturity	Energy	Communication ability	Welfare	Self-	Motivation	Discourse	Organization	Revisit intention
Self	Value	Adaptation	International marriage	Customer-orientation	City plan	Human rights	Self-respect	China	Children	Choice	Career identity	Local government	Empowerment	Aging	Health condition	Design	Originality	Value	Loyalty
Career exploration	Fairness	Senior	Globalizati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Emission right trading system	Korea refugees	Aggression	Festival	Risk factor	Preference	Satisfaction	Economic reform	Organization	Stress	Prepare later years	Gifted	Diaspora	Trust	Undergraduate
Creativity	Job commitment	Anxiety	Culture	Career commitment	Artificial neural networks	Korea	Optimism	Game industry	Internet addiction	Purchase intent	Life satisfaction	Education	Work autonomy	Nursing facility	Multicultural	Self	Culture	Relationship quality	Satisfaction
Teaching learning	Behavior intent	Parents attachment	Multicultural perceptions	Union Commitment	Natural disaster	Korean Peninsula	Life satisfaction	Multicultural	Emotional behavior problem	Undergraduate	Mental health	Taiwan	Charisma	Suicidal thoughts	Mindfulness	Intelligence	Hypocrisy	Client	Culture
Educational method	Image	Mental stability	Self	Emotional intelligence	Vulnerability	Kim Jongun	Gender role conflict	Digital contents	Problem behavior	Physical environment	Career self-efficacy	Vietnam	Emotional intelligence	Ego integrity	Anxiety	Brain cell	EU	Physical environment	Consumption emotion
Educational environment	Empowerment	Internet addiction	Youth	Management	Land use	Unification Policy	Adult attachment	Civilization	Social support	User's motivation	Job seeking anxiety	Identity	Emotional intelligence	Service	Duty	Diversity	Utopia	User satisfaction	Social-commerce
Delphi study	Job satisfaction	Suicidal thoughts	Youth	Service	Heat wave	USA	Mental stability	Culture technology	Child	Use intent	Happiness	Central Asia	Education	Age-limit	Dementia	Delphi study	Self-examination	Service	Simulation
Morality	Emotion	Teacher efficacy	Life satisfaction	Psychological capital	Temperature	Economy	Self-esteem	Media	Career maturity	Self	Family support	Hallyu	Authority	Health	Health	Problem solving	Locality	Consumer satisfaction	Trust
General teachers	Marketing	Education	Immigration	Dual commitment	Climate change convention	Kim Jongil	Negative emotion	Ethnic group	School Violence	Festival	Education	Economy	Global leader	Health	National pension	Future Society	Festival	System quality	Apartment
Knowledge	Social support	Multicultural	Immigrants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Crisis	South and North exchange	Acceptance	Humanities	Sympathy	Moved	Attribution bias	Senior	Undergraduate	Senescence	Undergraduate	Imagination	The other	User satisfaction	Face
Career	Emotion	Leadership	Domestic Violence	Job satisfaction	Water quality	Germany	Somatization	Japan	Aggression	Emotion	Aging anxiety	Multicultural	Female leader	Senior crime	City Seniors	Achievement motivation	Vigor	Infrastructure	Medical service

빅데이터를 통해 한국사회의 미래: 언론사 뉴스기사와 사회과학 학술지 등의 '미래사회' 관련 키워드 분석

우 중단적 분석에서는 중요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난 주제어였으나, 그것은 주로 정치 집락을 아닌 다른 집락에 소속된 키워드와는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명에 있어서도 미국, 북한, 일본의 경우 국제 이슈로 구분될 수 있는 독립적 집락을 구축하고 있는데 반해, 중국의 경우는 경제 그룹에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중국이 글로벌, 기업, 시장 등의 키워드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앞으로 한국 경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이 보다 강화될 것임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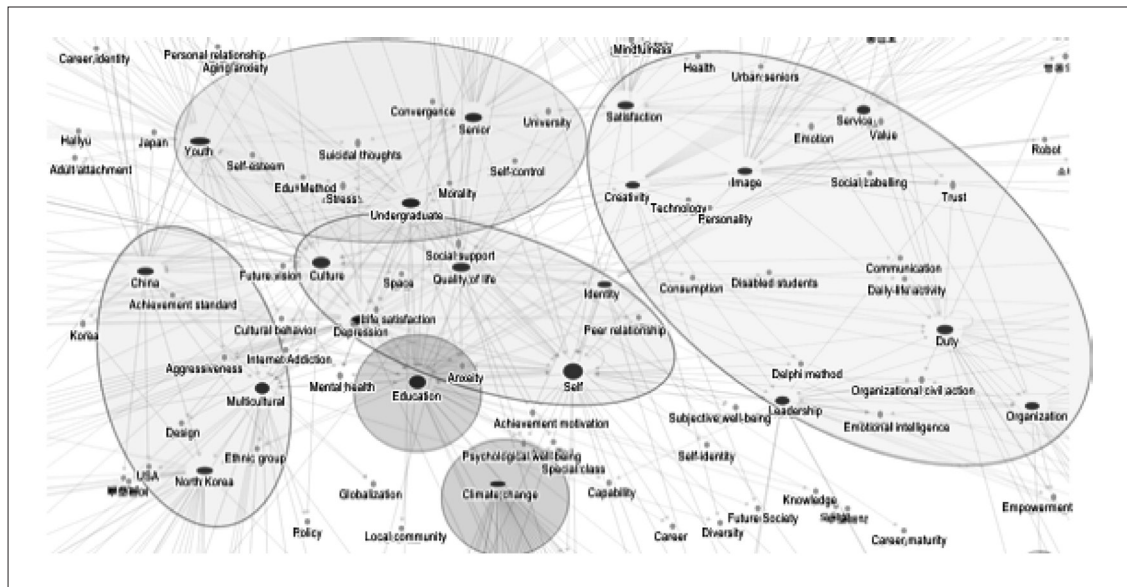
(2) 학술지 키워드의 연결망

〈그림 7〉의 학술지의 경우 6개의 키워드군(群)으로 연결망 구조를 독해할 수 있다. 가장 오른쪽에 직무를 중심으로 조직, 리더십, 서비스, 이미지, 창의성, 만족도 등 일과 직장에 대한 대형 집락이 존재한다. 청소년, 대학생, 노인의 세대 키워드군이 상부에 위치하고, 중국, 북한, 다문화의 국제 키워드군이 좌측에 존재한다.

기후변화 키워드는 독립적으로 하단부에 위치한다. 중심부에는 교육 키워드군과 자아를 중심으로 한 개인의 삶에 관한 키워드군이 위치한다. 개인의 삶과 관련된 키워드군에는 자아를 중심으로 삶의 질, 정체성, 문화, 우울 등의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다.

학술지 키워드 연결망 구조는 매체지 연결망 구조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한국, 글로벌, 정부 등 경제와 정치의 제도적 주체들이 연결망 구조의 핵심부를 이루었던 매체지와는 달리 학술지의 경우 교육과 함께 다양한 개인의 삶에 대한 관심사들이 연결망 구조의 핵심부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학술지와 매체지의 미래 아젠다의 주체가 미시적 관점의 개인과 거시적 관점의 제도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세부 키워드들의 이질적 속성과도 연루되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한편 국제 이슈에서도 중국, 북한, 미국 등이 다문화, 한국 등과 함께 독립된 하위 키워드군을 구성하고 있는데, 민족, 한류, 정책 등 경제적 이슈보다는 국가 정체성 및 동화와 관련된 집락적 성격을 지닌 것이라고 추



〈그림 7〉 학술지 키워드의 연결망 구조

〈Fig. 7〉 Network structure of keywords and their co-occurrence words, academic knowledge

정할 수 있다. 청소년, 대학생, 노인과 같은 세대 관련 키워드들이 하나의 독립된 미래 관심 범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경제의 경우 직무, 조직과 함께 서비스, 이미지, 만족도, 창의성 등 업무의 성격, 평가, 직장의 구조 등 미시적 경제생활에 대한 관심이 거시적 차원의 경제 이슈보다 더 중요한 관심사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IV. 결과의 해석 및 새로운 인식틀 모색

1. 분석 결과의 종합과 함의

2005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2년 7개월의 기간에 해당하는 매체지와 학술지를 통해 살펴 본 한국사회의 미래 관련 주제어들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최종적으로 정리해보자. 매체지에서는 한국사회의 미래 관련 주제어로 ‘한국’, ‘글로벌’, ‘삼성그룹’ 3개가

항상 최상위 Top 5에 포진되어 있다. 매체지에 해마다 등장하는 상위 키워드를 Top 10으로 확장하면 ‘서울’, ‘기업’, ‘경제’가 그리고 Top 20까지 확장하면 ‘대통령’이란 키워드가 상시적으로 등장한다. 반면 학술지에서는 전혀 다른 키워드들이 상위를 점하고 있다. 즉, 학술지에서 최상위 Top 5에 항시적으로 포진되어 있는 한국사회의 미래 관련 키워드는 ‘교육’, ‘직무’, ‘자아’이다. 또 학술지에 매년 등장하는 상위 주제어를 Top 10으로 확장하면 ‘조직’이, 그리고 Top 20까지 확장하면 ‘우울’이 추가된다.

매체지에 나타난 미래사회 관련 상위 주제어는 대부분 ‘경제’, ‘정치’, ‘과학기술’ 영역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반면 학술지에 나타난 미래 관련 상위 주제어는 주로 ‘심리’, ‘직업’, ‘국제’ 영역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이러한 추세는 매년 빈번하게 등장하는 상위 주제어를 Top 40으로까지 확장해도 마찬가지였음이 드러났다. 매체지와 학술지의 Top 40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표 5〉 매체지와 학술지의 항시적 상위 주제어 비교

〈Table 5〉 Comparison of permanent top topics: media knowledge vs. academic knowledge

	Permanent Topics of Media Knowledge	Permanent Topics of Academic Knowledge
Top 5	Korea / Global / Samsung	Education / Duty / Self
Top 10	Seoul / Enterprise / Economy	Organization
Top 20	President	Depression

〈표 6〉 매체지와 학술지의 상위 주제어의 영역별 비교

〈Table 6〉 Comparison of categories of topkeywords of media and academic knowledge

Category	Keywords of Media Knowledge
Economy	Samsung, Enterprise, Economy, Development, Market, Growth, Crisis, Creative Economy, Hyundai
Politics	Party, President, Government, Park Geunhye, Election, National Assembly, Lee Myungbak, Ahn Cheolsu
Technology	Technology, Mobile, Smart, Electronic, Energy, Internet, Digital
Category	Keywords of Academic Knowledge
Psychology	Self, Depression, Satisfaction, Leadership, Identity, Stress, Social support, Trust
Occupation	Duty, Organization, Organizational civil action, Profit adjustment, Enterprise value, Small enterprise
International	North Korea, China, Korea, Ethnic group, Globalization, Japan, EU

주제어들을 영역별로 분류하면 <표 6>과 같다.

이러한 경향성을 Jürgen Habermas(1981)가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의사소통행위 이론)>에서 제시한 체계-생활세계론에 접목시켜 보면, 매체지의 미래 관심은 '체계(System)'에, 학술지의 미래 관심은 '생활세계(Life-world)'에 집중되어 있다고 풀이할 수 있다. 즉 매체지의 미래 관심은 거시적 사회 구조와 양적 성장 그리고 기술발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에 반해 학술지의 미래 관심은 미시적 내면세계와 질적 만족 그리고 직업 세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래적 관심사가 이처럼 현격히 양분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국사회의 미래를 올바르게 전망하고 합당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려면 기존 시각을 넘어선 새로운 인식틀이 필요하다고 본다.

2. 대안적 인식틀로서의 부조화 패러다임(Mismatch Paradigm)

전통적으로 사회학에서 사회 문제나 사회 변동을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균형론적 시각에 입각한 '기능주의 패러다임'과 변혁론적 시각에 의거한 '갈등 패러다임'으로 양분되어 왔다. 기능주의 패러다임은 사회가 직면한 현재적 위기의 요인을 균형의 파괴라는 입장으로 진단하여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주력한다. 반면 갈등 패러다임은 사회 문제의 원인을 계급 대립 등과 같은 사회적 범주들 간의 이해나 가치관 충돌로 전가하면서 기존 질서의 급진적 변혁을 강조하는 것인데, 이는 다시 서구 갈등론과 맑스주의 갈등론으로 구분된다(Ritzer & Stepnisky, 2014; Turner, 2013; Wallace & Wolf, 2006). 한국사회의 경우 기능주의 패러다임은 주로 산업화 시기에 정부와 산업계에 의해 적극적으로 채택되어 오랫동안 정책 수립의 기본틀로 활용되어 온 반면, 갈등 패러다임은 민주화 시기에 노동계나 시민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이론틀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Jo, 2001; KPSA & KSA, 2007; KSA, 1985; Song, 1997).

한편, 당면 과제를 해소하여 사회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전략도 크게 다음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 왔다. 그 하나는 '택일론'으로, 성장 우선론 대 복지 우선론, 개발 우선론 대 보존 우선론, 선택적 복지론 대 보편적 복지론 등 양립하기 힘든 상반된 방안들 중 어느 한 쪽에 치중된 정책을 밀고나가자는 입장이다. 다른 하나는 '절충론'으로서, 녹색성장론, 동반성장론, 시민성장론, 포용적 성장론, 통합적 성장론 등과 같이 대립적 견해들을 혼합적으로 조율하거나 조정하는 타협적 전략을 모색하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러 요구들이 복잡다단하게 얽히고설켜 있는 현대사회의 대부분 문제점들은 기능주의 패러다임이나 갈등 패러다임 중 어느 한 쪽 시각에 의존해서는 온전한 진단과 바람직한 해법의 제시가 불가능하다고 본다. 특히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근대적 성격의 목표를 추구하던 단계를 넘어 탈(脫)근대적 미래로 향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기능론과 갈등론으로 대변되는 기존 패러다임의 효용성을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정책적 측면에서도 한 가지 방안에 충실하고 다른 것은 배제하려는 택일론적 입장으로는 다변화된 사회 구성원들의 욕구나 정향을 온전히 충족시킬 수 없다. 상반된 지향성을 지닌 방안들을 단선적으로 짜맞추는 절충론적 입장 역시 모호한 구조적 차원에만 머무를 뿐 실효성 있는 해법으로 발돋움하기 난망하다는 점이 근자의 경험으로부터 입증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한계점들을 두루 감안해, 향후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데 유용성을 배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 부조화 패러다임이다. 부조화 패러다임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제반 문제점들의 원인을 상반된 여건이나 가치들 간의 부조화로 인식하는 것이다. 또 문제 해결의 방안을 상이한 범주 중 어느 하나를 일방적으로 선택하거나 두 가지를 적당히 절충하는 방향이 아니라 조화 상태를 향한 재조합(Rematching)을 통해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가는 발전 전략을 지향한다(NIA, 2016). 그럼으로써 과거와는 판이한 모습으로 변모해 가는 새

로운 사회 현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원화되어가는 사람들의 욕구와 기대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 부조화 유형 및 재조합 정책 현황을 감안한 한국사회의 미래

1) 예비적 고찰

정책 효과를 고려해 한국사회의 미래를 진단하기 위한 첫 단계 작업으로 우리 사회의 주요 부조화 유형을 과거와 현재 그리고 현재와 미래라는 양대 시간 범주로 구분하고, 이들 각각을 ‘지체형 부조화’와 ‘미비형 부조화’로 규정하고자 한다. 지체형 부조화란 과거와 현재 간의 부조화 상태를 지칭한다. 즉 현재 급격하게 진행 중인 사회 변화에 대한 과거의 미비와 현재적 대응 능력의 결여로 인한 부적응에서 파생하는 부조화 현상을 의미한다. 반면 미비형 부조화는 현재와 미래 간의 부조화 상태를 말한다. 즉 보다 급격한 변화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사회구성원들 간의 집합적 가치나 정부의 정

책적 의지가 현 시점에서 부재하거나 미흡한 상태로 인해 발생하는 부조화 현상을 뜻한다. 최근 우리 사회의 10대 도전과제로 꼽히는 문제점들을 두 가지 부조화 유형으로 범주화하면 <표 7>과 같다.

미래 예측의 목표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 ‘3P 모델’이다. 3P란 인간에게 예측되는 미래의 서로 다른 3가지 얼굴을 의미하며, ‘있을 법한 미래(Plausible Future)’, ‘가능한 미래(Possible Future)’, ‘바람직한 미래(Preferable Future)’로 구성된다(Strachotta, 2014).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3P 외에 ‘계획된 미래(Planned Future)’까지 감안해 미래 한국을 진단하고자 한다. ‘계획된 미래’란 향후의 목표를 능동적으로 설계하고 대응해가는 미래를 말한다. ‘계획된 미래’의 구현에 가장 결정적 요소가 되는 것이 국가 정책이다(Hwang, 2016). 따라서 지난 해 출범한 새 정부의 정책 구상에 대한 분석을 추가해 단순한 조망이 아니라 정책적 효과까지 감안한 구상적 형태로서의 미래 한국사회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표 7〉 부조화 유형에 따른 한국사회의 주요 도전 과제
〈Table 7〉 Major challenges of korean society by types of mismatch

Types of Mismatch	Social Problems	Causes of Mismatch
‘Lagging’ Mismatch	Aging	Lack of linkages between childbirth, labor, and welfare policies
	Low growth	Regulations block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ge and new growth
	Polarization	Disappearance of economic democracy and accelerated competition structure for winners
	Unemployment	The speed gap between change of careers and educational innovation
	Governability Crisis	Insufficient institutional convergence plan for the growing desire to participate and the politics of Agora
‘Missing’ Mismatch	Ecological Crisis	Lack of a new sustainable development model with the end of the carbon era
	Crisis of Everydaylife	Transitional chaos from labor and growth-oriented value to life and happiness-oriented values
	Resilience	Poor social resilience centered on relationships based on community values
	Civilization Clash	The conflict between global citizenship and nation-centered identity.
	Crisis of Species	Fear of the coexistence of organic and hybrid human beings

2) 정책적 대응의 범위와 방향

부조화론에 준거한 정책적 대응을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의 노력이 요구된다. 하나는 관심 차원에서 체계(System) 관련 정책 분야와 생활세계(Life-world) 관련 정책 분야 간 균형 상태를 견지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역대 한국의 정부 정책은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 체계와 관련한 분야를 우선시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국 사회는 일자리, 저출산, 교육, 복지, 안전, 문화 등 생활세계 관련 정책 현안들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Suh, 2008; Yee, 2015). 청와대 홈페이지에 개설된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높은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것 중에 소년법 개정, 낙태죄 폐지, 조두순 출소 반대, 권역외상센터 지원 등 안전, 보건의료 등 생활세계와 관련된 이슈들이 많다. 따라서 정부가 생활세계 관련 아젠다들에 얼마나 비중을 두고 있는 가에 대한 평가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다른 하나는 지체형 부조화와 미비형 부조화 극복을 위한 '재조합(Rematching)'의 균형적 실현이다. '비동시성의 동시성(The Contemporaneity of the Uncontemporary)'이란 명제가 말해주듯 한국사회는 장기간 전근대, 근대, 탈근대의 서로 다른 과제와 현안들이 중층적으로 혼재해 왔다. 과거와 현재 사이의 지체형 부조화 그리고 현재와 미래 사이의 미비형 부조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이 같은 연유에서이다. 따라서 지체형 부조화와 미비형 부조화 문제를 정책적으로 얼마나 균형적으로 풀어 나갈 것인가도 한국사회의 미래상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건이 된다.

3)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분석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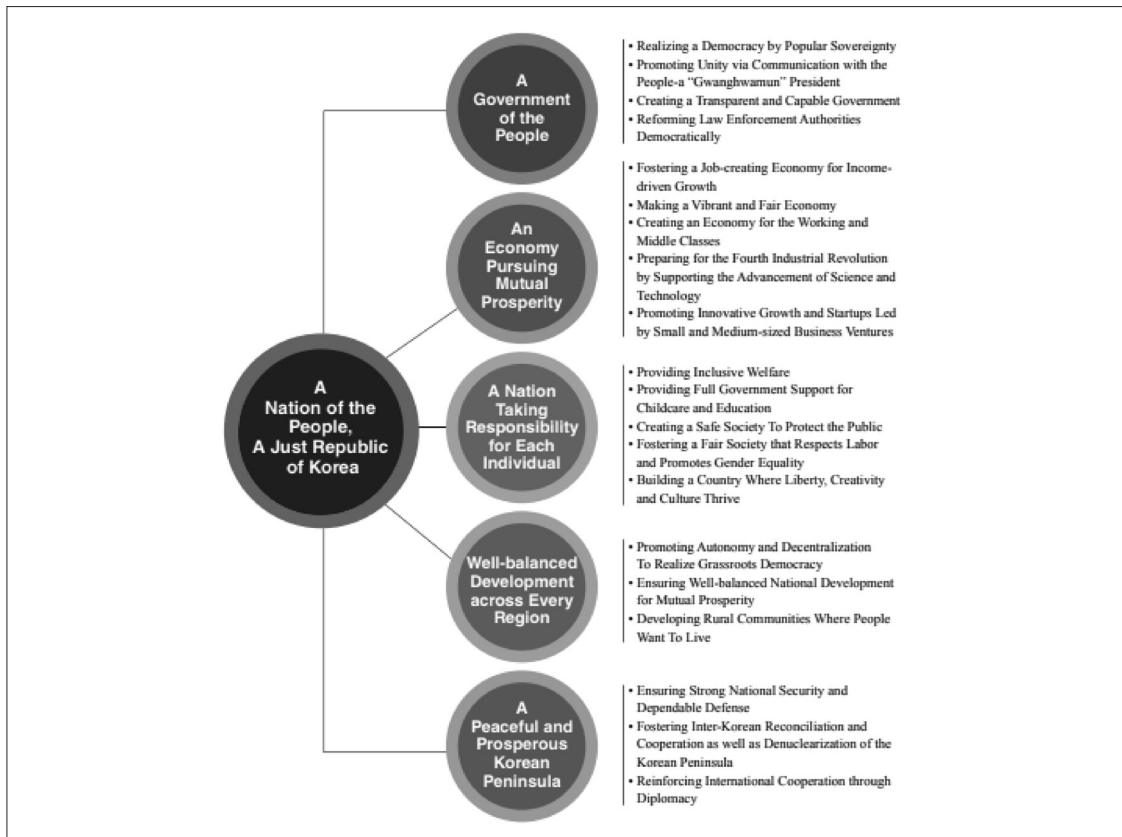
이 같은 두 가지 문제의식에 준거해, 본 논문에서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100대 국정과제들을 대상으로, 과연 그들이 한국사회 미래 전략의 모색을 위해 타당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크게 대분류에 해당하는 ① 국민이 주인인 정부 ② 더불어 잘사는 경제 ③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④ 고르게 발

전하는 지역 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5대 국정목표와 중분류에 해당하는 20대 국정전략 그리고 소분류에 해당하는 100대 국정과제 및 487개 세부 실천과제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8〉 참조).

(1) 관심사별 분석 및 평가

정책적 관심사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100대 국정과제 대한 내용 분석을 통해 이를 다시 체계와 관련도가 높은 정책 분야 및 생활세계와 관련도가 높은 정책 분야로 재구성하였다. 즉 체계와 관련도가 높은 정책 분야는 다시 경제, 과학기술, 통일, 정치, 정부, 국방, 외교, 사회인프라, 언론 등 9개 항목으로 분류하였으며, 생활세계와 관련도가 높은 정책 분야는 일자리, 교육, 지역, 안전, 문화, 복지, 환경, 인구/성/가족, 인권 등 9개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는 체계 관련 정책 아젠다 54개, 생활세계 관련 정책 아젠다 46개임이 드러났다.

〈표 8〉에서 나타났듯이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는 체계 관련 정책 분야가 54개, 생활세계 관련 정책 분야가 46개로 상호 간에 비교적 양호한 균형성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균형적 정책 목표의 구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비교적 잘 부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상기 분석 결과는 앞서 매체지와 학술지의 미래 관심 키워드 빅데이터 분석 결과와도 높은 합치성을 보인다. 체계에 미래 관심을 집중했던 매체지에서 Top 40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키워드들은 대부분 경제, 정치, 과학기술 영역에 해당하는 것들이었다.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체계 관련 정책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위 3가지 영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활세계에 미래 관심을 집중했던 학술지와 100대 국정과제 간에도 합치성이 드러난다. 학술지에서 Top 40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키워드들 중 직업과 심리 영역에 해당하는 것들이 많은데,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생활세계 관련 정책 분야에서도 직업 영역의 비중이 가장 높다. 안전과 복지 관련 정책들도 학술지의 항상적 상위 키워드를 차지하고 있



source: <100 Policy Tasks>, www.president.go.kr

〈그림 8〉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Fig. 8〉 Five-year plan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표 8〉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관심사별 분류

〈Table 8〉 Classification of 100 areas of national policy in terms of the sectors of interest

Policy Areas for 'System'	N.	Policy Areas for 'Life-world'	N.
Economy	16	Occupation	7
Scientific Technology	6	Education	7
Unification	6	Region	7
Politics	5	Security	6
Government	5	Culture	6
Nation Defence	5	Welfare	5
Diplomacy	5	Environment	4
Social Infrastructure	4	Population/Gender/Family	3
Media	2	Human Rights	1
Total	54	Total	46

〈표 9〉 미래 관심 키워드 빅데이터 최상위 영역과 국정과제 관련도

〈Table 9〉 Areas of top future interest by big data keywords and their association with the tasks for national policy

Top Areas of Media Knowledge	Number of Policy Tasks	Top Areas of Academic Knowledge	Number of Policy Tasks
Economy	16	Psychology	11 (Security + Welfare)
Politics/Government	10	Occupation	7
Scientific Technology	6		

는 ‘우울’, ‘만족도’,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신뢰’ 등 심리와 밀접한 관련이 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학술지의 미래 관심사와 100대 국정과제 중 생활세계 관련 정책 분야와의 합치성은 더 높여 잡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표 9〉 참조).

(2) 지체형 부조화-미비형 부조화 관점에서의 분석 및 평가
이어서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세부 내용의 검토를 통해 지체형 부조화와 미비형 부조화의 극복에 해

당하는 항목들로 재분류하였다. 지체형 부조화 관련 과제는 기존 제도의 보완이나 개선에 정책적 초점을 맞춘 항목들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미비형 부조화 관련 과제는 가까운 미래 사회에 대한 능동적인 준비를 염두에 두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거나 제도를 신설하는데 초점을 맞춘 항목들을 선정했다. 그 결과 100대 국정과제 중 총 90개의 국정과제는 과거와 현재 간의 부조화를 극복하기 위한 지체형 부조화에 해당하는 것들이었고, 10개의 국정과제만이 미비형 부조화와 관련된 것

〈표 10〉 부조화 유형별로 본 정책적 지향

〈Table 10〉 List of policy orientations by types of mismatch

Policies Related with 'Lagging' Mismatch	Policies Related with 'Missing' Mismatch		
90 Tasks in Total	Category	Task No.	Policy Task
	Politics Occupation	5	To become the “Gwanghwamun” President, who remains committed to communicating with people 365 days a year
		8	To realize an open and innovative government and service-oriented administration
	Occupation	20	To promote innovation in the service industry to create decent jobs
	Scientific technology	33	To strengthen the software and ICT sectors to build the foundation to lea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34	To identify and nurture new future-oriented industries to create high added value
		37	To identify eco-friendly future energies and foster new energy businesses
	Education	54	To create a better educational environment to prepare for the future and make schools safe
	Environment	60	To promote a transition to safe and clean energy based on a nuclear phase-out policy
		61	To faithfully carry out the implementation of the Paris Agreement on Climate Change
	Region	74	To promote Well-balanced Development across Every Region

들이었다.

미비형 부조화 관련 과제 중 먼저 정치 분야에서 5번 과제인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 및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정부 인사의 모든 일정 공개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청와대가 과거와 달리 국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 소통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한 공개를 천명했다는 점에서 미래지향적인 태도라 판단되어 미비형 부조화 관련 과제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8번 과제인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 하는 행정'도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개막되었던 <광화문 1번가>와 <국민청원 게시판>으로 대변되듯이 국민이 정책 입안 단계에서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민관협업을 통해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최첨단 기술 기반의 지능형 정부와 과학적 행정 구현을 새롭게 표방했다는 점에서 미비형 부조화 관련 과제로 분류하였다.

직업 분야와 관련해서는 20번 과제인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을 미비형 부조화 관련 과제로 분류하였다. 업종 간 융합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며,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는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중합계획 수립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먼저 33번 과제인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이 미비형 부조화 관련 과제로 분류된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 범부처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 수립 등 행정적 지원과 함께 지능정보 핵심기술 R&D 및 인재양성 등에 정부 예산을 집중 투자하며, 4차 산업혁명 분야 신산업의 원활한 시장 진입을 위한 규제 개선 등 미래 기술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34번 과제인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도 미비형 부조화 관련 과제에 포함시켰다. 자율주행차, 드론, 지능형 로봇, 3D프린팅, AR·VR, IoT가전, 스마트선박, 나노·바이오, 항공·우주 등 최선의 첨

단 기술에 기반을 둔 산업 생태계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37번 과제인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도 과학기술 분야에서 미비형 부조화 관련 과제로 분류하였다. 탄소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친환경·스마트 재생 에너지 활용 비중을 높여 저탄소·고효율 구조의 에너지 신산업 선도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정책 목표는 새로운 에너지 생태계 창출을 위한 미래형 과제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54번 과제인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을 미비형 부조화 관련 과제로 분류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과정, 교육 환경, 교육 인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설계 계획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 분야에서 미비형 부조화 관련 과제로는 먼저 60번 과제인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전환'을 들 수 있다. 탈원전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동참하는 동시에 이를 구현하기 위해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공론화위원회 운영과 같은 시민 참여 기반의 새로운 거버넌스 체제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미비형 부조화 관련 과제로 분류하였다.

61번 과제인 '신(新)기후체제에 대한 이행체계 구축'도 환경 분야에서의 미비형 부조화 관련 과제에 해당한다. 세계적 수준에서 요구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 억제 정책에 적극 동참함과 동시에 파리후속협상 참여 등 환경 이슈와 관련하여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또한 그것은 국내적 차원에서는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할 위험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예측·관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안전사회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로 외연된다.

끝으로 지역 분야와 관련해서는 74번 과제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를 미비형 부조화 관련 과제로 분류했다. 제2국무회의 시범운영 등 중앙-지방 간 정례 협의체를 신설하고, 중앙 정부의 권한의 상당 부분을 지방 정부로 이양하여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 확보하겠다는 점을 감안해서이다. 그것은 주민발의·주민소환·주민투표 등 주민 직접참여 제도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목표도 밝히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 높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개헌안에 자치분권과 주민 직접참여 제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화하여 헌법적 차원에서 이를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정책 과제가 실현된다면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미비형 부조화 관련 과제로 분류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들 10개의 미비형 부조화 관련 국정과제를 다시 정책 분야별로 분류해보면 과학기술 분야가 3개 과제로 가장 많았고, 정치 분야와 환경 분야에 각각 2개 과제, 그리고 직업 분야, 교육 분야, 지역 분야에 각각 1개 과제씩 분포되어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점은 정책 분야 분류 항목에서 가장 많은 정책과제를 할당했던 경제 분야에서는 정작 미비형 부조화 관련 정책과제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다. 대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미비형 부조화 관련 정책과제들 대부분이 미래 신산업 발굴·육성 등 경제 분야의 아젠다로 연결되고 있었다. 이는 앞으로 미래 경제 생태계가 신기술 기반으로 급속히 재편되면서 기술사회구성체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 하에서 10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음을 시사한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서 미래 사회에 대비한 정책적 관심은 균형적 패러다임의 구현에는 충분히 부합하고 있으나 재조합 패러다임의 구현이란 측면에서는 많은 보완이 요구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현 정부는 지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드러난 우리 사회의 퇴행적 흐름에 대한 촛불시민의 분노와 저항을 근간으로 출범하였다. 따라서 적폐로 대변되는 과거의 낡은 악습과 제도적 폐단을 청산하는 것이 촛불시민의 최우선 요구여서, 정부도 일단 그러한 요청에 정책적 초점을 맞추는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새 정부의 총괄적인 정책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100대 국정과제에 대한 분석 결과

로부터 여실히 드러났듯, 미래형 부조화 관련 정책에 비해 지체형 부조화 관련 정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바로 이 같은 시민적 요구가 반영됐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지체형 부조화와 미비형 부조화 문제는 각기 독립적이고 배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연제적 현상으로 간주할 수 있는 만큼,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들을 '적폐' 논리에 의거해 과거형으로만 인식하는 대신 미래적 관점과의 균형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대처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V. 결론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한 마디로 압축한다면, 체제와 생활세계의 부조화를 화두로 하는 한국사회의 미래 관심사는 영역·유형·시점별 이분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현대사회의 위기나 미래적 도전과제와 같은 이슈들을 놓고 고민해 온 사회사상가나 사회과학자들의 주장이나 견해와 상통하는 바가 많다. 예컨대, 1970년대 서구 청소년층의 가치관을 조사한 Ronald Inglehart는 그들의 생활 관심이 물질적 차원에서 비물질적 차원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조용한 혁명(Silent Revolution)' 테제를 제시하여 폭넓은 공감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그보다 앞서 삶의 목적과 연관된 '소유냐 존재냐'라는 화두를 제기한 Erich S. Fromm 역시 소유보다 실존적 의미를 중시하는 것이 근현대 사회의 보편적 동향임을 피력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Martha Nussbaum과 Amartya Sen도 물질적 생활수준보다 객관적·주관적 요인들을 포괄하는 삶의 질이 현대인들의 핵심적 관심사로 대두하고 있음을 역설하였는데, 이들 모두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전과 내용을 달리하는 새로운 의식적 도약을 지향한다는 전환론적 논지에 다름 아니다(Fromm, 1976; Inglehart, 1977, 1990; Nussbaum & Sen, 1993). 그들의 지론은 다음과 같이 축약할 수 있다.

- 중심 가치: '물질적 가치에서 비물질적 가치로'(R. Inglehart)
- 실존 양식: '소유에서 존재로'(E. Fromm)
- 생활 관심: '삶의 수준에서 삶의 질로'(M. Nussbaum and A. Sen)

이들 명제는 세부 내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에서 …으로'라는 교체적·전환적(Transitional, Shifting) 논조를 공유한다. 그러나 인간의 보편적 동기 부여 과정을 논구한 에이브러햄 매슬로가 제시한 욕구단계설(Need Hierarchy Theory)이 누적성을 전제로 한 사다리꼴 형태를 상정하고 있듯(Maslow, 1943), 상위 욕구는 하위 욕구를 대체하면서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위 욕구에 기반 해 부가적으로 출현하는 것이 통상적 과정이다. 요컨대 하위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상위 욕구의 실현을 꿈꿀 수 없다.

더구나 고도성장 기조가 약화되어 사회경제적 침하 현상이 도처에서 드러나는 현 상황에서는 하위 욕구의 충족을 전제로 하는 상위 욕구의 달성을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즉, 오늘날과 같은 수축기적 상황에서는 상기 학자들이 제시한 비물질적 가치, 삶의 질, 혹은 존재적 관심으로의 이행은 기초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한 결코 순조롭게 달성될 수 없다. 기대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욕구 과잉이 야기하는 이 같은 시대적 한계로 인해 종전의 결핍론이나 격차론을 넘어서는 대안적 인식들이 요청되는 것이다.

그러한 난제가 가중될 미래사회의 도전 과제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대안적 패러다임으로 제안한 것이 부조화론(Mismatch Theory)이다. 부조화론은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의 측면에 있어서도 혁신적 대안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요컨대, 이질적 범주들 간의 혼합을 넘어서는 융합적 혼성을 통해 어긋남이 아닌 어울림을 지향하는 '재조합'(Rematching)을 해법으로 제시함으로써, 시효를 유실해가는 성장론이나 재성장론, 실현가능성이 박약한 탈성장론, 또는 기만적 절충론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의 구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References

- Cho, H. (2001). *The Dynamics of Democracy and Social Movements in South Korea*. Press of Sharing House.
- {조희연 (2001). 〈한국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의 동학〉. 나눔의 집.}
- Cielen, D., Meysman, A. & Ali, M. (2016). *Introducing Data Science: Big Data, Machine Learning and More, Using Python Tools*. Manning Publications.
- Drucker, P. (1993). *Post Capitalist Society*, Trans. J. Lee. The Korea Economic Daily.
- {Drucker, P 저·이재규 역 (1993).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 한국경제신문사.}
- Fromm, E. (1976). *To Have or to Be: A New Blueprint for Mankind*. Harper & Row.
- Habermas, J. (1972[1968]). *Knowledge and Human Interest*. Heinemann Educational Books.
- Habermas, J. (2006).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Trans. C. Chang. Nanam Publishing House.
- {Habermas, J. 저·장춘익 역 (2006). 〈의사소통행위론〉. 나남.}
- Hayashi, C. (1998). "What is Data Science? - Fundamental Concepts, Heuristic Example." Hayashi, C., et. al. (Eds.) *Data Science, Classification, and Related Methods*. Springer.
- Heilbroner, R. (1995). *Visions of the Future*. Oxford University Press.
- Hwang, J. (2016). "Paradigms of the Intelligent Society : Analysis and Policy Implications." *Informatization Policy*, 23(2), 3-18.
- {황종성 (2016). 지능사회의 패러다임 변화 전망과 정책적 함의. 〈정보화정책〉, 23권 2호, 3-18.}
- Inglehart, R. (1977). *The Silent Revolu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Inglehart, R. (1990). *Cultural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Jeon, B. & Kim, H. (2017). "An Exploratory Study on

- the Sharing and Application of Public Open Big Data.” *Informatization Policy*, 24(3), 27-41.
- {전병진·김희웅 (2017). 공공빅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화정책>, 24권 3호, 27-41.}
- Kabacoff, R. (2011). *R in Action: Data Analysis and Graphics with R*, Trans. J. Shin, S. Kim, & H. Jung. Hongrung Publishing Company.
- {Kabacoff, R. (2011) 저·신중화·김선업·정희태 역 (2017). 「R 인 액션: 빅데이터 분석도구」. 홍릉과학출판사.}
- Kim, M. (2013). *The Coming of Convergence Civilization: From the Age of Analysis to the Age of Synthesis*. Nanam Publishing House.
- {김문조 (2013). <융합문명론: 분석의 시대에서 종합의 시대로>. 나남.}
-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KISDI) (2017). *A Study on the National Policy Agenda based on Science & Technology: ICT for lead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7). <제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과학기술-ICT 기반 국가정책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KISTEP). *Innovative Developmental Future Trend Plus 10*.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8). <혁신성장 미래 트렌드 Plus 1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Korean Sociol Association (KSA) (1985). *A Study on Korean Society and Conflicts*. The Next Korea Foundation.
- {한국사회학회 (1985). <한국사회와 갈등의 연구>. 현대사회연구소.}
- Maslow, A. (1943).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50, 370-396.
-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NARS) (2012). *Future Research Trends and Major Strategies of Major Countries*.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 {국회입법조사처 (2012). <주요국의 미래 연구동향 및 주요 전략>. 국회입법조사처.}
-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NIA) (2011). *Future Research White Paper*.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미래연구백서>. 한국정보화진흥원.}
-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NIA) (2016). *BIG STEP, National Future Strategy based on ICT: Society*.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6). <ICT 기반 국가미래전략 BIG STEP: 사회>. 한국정보화진흥원.}
-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NIA) (2017). *BIG STEP, National Future Strategy based on ICT: Society*.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ICT 기반 국가미래전략 BIG STEP: 사회>. 한국정보화진흥원.}
- Nonaka, I. & Takeuchi, H. (1995). *The Knowledge-creating Company*. Oxford University Press.
- Nunan, D. & De Domenico, M. (2017). “Big Data: a Normal Accident Waiting to Happen?” *Journal of Business Ethics*, 145(3): 481-491.
- Nussbaum, M. & Sen, A. (Eds.) (1993). *The Quality of Life*. Oxford University Press.
- OECD (2018). “Futures Tendances Technologiques”. *Science, Technologie et Innovation: Perspectives de l’OCDE 2016*, 79-134.
- Pink, D. (2005). *A Whole New Mind: Why Right-brainers Will Rule the Future*. Riverhead Books.
- R Core Team. (2016). *R: A Language and Environment for Statistical Computing*. R Foundation for Statistical Computing. (<https://www.R-project.org>).
- Ritzer, G. & Stepnisky, J. (2014). *Sociological Theory, 9th. Edition*. McGraw-Hill.
-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STEPI) (2017). *Science and Technology Based Foresight Analysis for National Development IX*.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7). <과학기술기반 미래연구사업 IX>.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Song, B. (1997). *The Conflict Structure of Korean*

- Society*. Kyoungmunsa.
- {송복 (1997). 〈한국사회의 갈등구조〉. 경문사.}
- Stehr, N. (1994). *Knowledge Societies*. Sage.
- Strachotta, G. (2014). *Probable, Preferred, Plausible and Possible Futures*. <http://www.deftarchitects.com/articles/Probable,Preferred,Plausible&PossibleFutures-ArchitectVictoria.pdf>. (Retrieved on November 21).
- Suh, M. (2008). "Informatization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in Development." *Informatization Policy*, 15(4), 105-119.
- {서문기 (2008). 사회발전과정에서 정보화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정보화정책〉, 15권 4호, 105-119.}
-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KPSA) & Korean Sociol Association (KSA) (2007). *New Conflicts and National Integration in Korean Society*. Ingansarang.
- {한국정치학회·한국사회학회 편 (2007). 〈한국사회의 새로운 갈등과 국민통합〉. 인간사랑.}
- Turner, J. (2013). *Contemporary Sociological Theory*. Sage.
- Wallace, R. & Wolf, A. (2006). *Contemporary Sociological Theory: Expanding the Classical Tradition*, 6th. Edition. Pearson.
- Yee, J. (2015). "Social Quality, Competition, and Happiness". *Asia Review*, 4(2), 3-29.
- {이재열 (2015). 사회의 질, 경쟁, 그리고 행복. 〈아시아리뷰〉, 4권 2호, 3-29.}
- Unpublished: Advisory Committee (2017). "Five-year roadmap for sweeping reforms in politics of Moon Jae-in Administration." <http://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45050042>, (Retriebed on November 21).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http://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45050042>. (검색일: 2018. 11.21.).}